

폴리머 생산 “수익성 호전” 기대

세종증권, 국내 에틸렌 가격안정 ... LG화학·호남 주가에 시선집중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초유분 및 유도품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폴리머 생산기업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LG화학,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제일모직 등 관련기업들의 주가상승 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증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석유화학제품 국제가격은 인도네시아 Chandra Asri NCC의 가동중단 영향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유도품인 PE(Polyethylene) 및 PP(Polypropylene) 제품의 동남아시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의 NCC 가동을 상승에 따른 잉여 에틸렌 처리문제와 타이완 Formosa NCC No.1의 정상가동으로 수급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폴리머 제품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유분제품의 상대적인 가격안정으로 국내 폴리머 생산기업들의 수익성 호조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가격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PVC(Polyvinyl Chloride)는 지난 주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VCM(Vinyl Chloride Monomer) 가격상승과 중국수요 증가로 12월 가격이 톤당 7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또한 단기적으로는 SM(Styrene Monomer) 가격상승에 따른 마진하락이 예상되나, 동부한농화학의 SM 공장 가동재개로 조만간 가격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며, ABS 중국 내수가격이 Spot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MEG(Monoethylene Glycol) 가격은 중국의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기업들과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톤당 685달러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VCM 생산기업들의 일부 가동중단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EDC(Ethylene Dichloride) 가격은 C&F SE Asia 톤당 282.5달러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2>